

익산, 책임형 복지체계 구축

익산시가 출산부터 노후까지 아우르는 책임형 복지체계 구축에 주력한다고 1일 밝혔다.

익산시에 따르면 출산·보육정책 강화를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함께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통해 시민 복지 체감도 향상에 나선다.

시는 다양한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출산과 보육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도모한다.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간인 '다함께 돌봄센터'와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을 확충한다.

또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간·휴일 시간제 보육 서비스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정보연계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익산경찰서와 교육지원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초기대응과 보호에 앞장선다.

시는 아울러 효 문화도시 조성에 주력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정착화한다.

지난해에 정리된 효 관련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는 '효문화자료보감'을 제작, 어린이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더불어 효문화진흥원을 유치해 어르신이 존경받는 효 문화 장수 도시를 완성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시가 맞벌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공간인 '다함께 돌봄센터'와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운영을 확충한다.

'다함께 돌봄센터'와 '우리마을 돌봄공동체'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 정책 추진도

시는 또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344억원을 투입해 1만84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여기에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작업장 건립을 추진해 안정적인 자활 작업공간 제공한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을 연계한 긴급지원사업과 위기가구 행복나눔마켓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위기 속에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위기가

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지원대상을 기존 중위소득 75%에서 100%까지 확대했다.

또 기존 사회복지수급제도 외에도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시민을 위해 조사를 행복나눔마켓·뱅크에서 조건 없이 생필품과 식품을 무료로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정책이 더욱 내실을 기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복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서, 청소년 온라인 SNS 창구 마련

익산경찰서(서장 송승현) 여성청소년과 학교전담경찰관은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 비정상화에 따른 학생과의 대면 활동 제약으로 학생과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소통 부재 해소를 위한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했다.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계정을 개설하여 '너나들이'('너' '나' 하고 부르며 터놓고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라는 이름의 온라인 소통의 장을 꾸려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너나들이'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들의 활동 사항을 홍보하고 청소년 관련 법률 지식,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카드뉴스 제작, 온라인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활동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캠페인 참가자들에게 홍보 물품을 배부하는 등 학생뿐만 아니라 SNS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까지도 대상으로 하여 관심 및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전북형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0일간 2021년 전북형 청년수당(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전북형 청년수당은 취업 초기 저소득 청년의 낮은 임금을 보전하여 청년의 경제적인 자립과 지역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시범사업 이후 올해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대상 분야를 넓히고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모집인원은 145명이며 지원자격은 7개 분야(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정보통신업, 문화예술, 연구소기업)에 1년 이상 종사했고 주민등록상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기존 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만18~39세 청년이다.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은 전북형 청년수당 사이트(ttd.j.go.kr) 또는 전북청년허브센터(www.jb2030.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는 아동의 시정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친화도시 홍보를 위해 아동의원과 서포터즈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시정 참여권 보장 익산 '아동의원' 모집

19일까지 서포터즈단원도 모집

익산시는 아동의 시정 참여권을 보장하고 아동친화도시 홍보를 위해 아동의원과 서포터즈단원을 공개 모집한다. 시는 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초등학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3회 아동의원과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단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아동의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50명 이내,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단원은 연령에 관계없이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명 이내로 모집할 예정이다. 아동의원과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 단원으로 선발되면 일기 동안 아동 관련 정책 토의와 의견제시, 개선 방안 논의, 아동친화도시 홍보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희망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공고란 참고) 신청서류를 받아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동복지과(☎859-5338)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 전통시장, 온라인 체험 시범운영

밀키트 개발·배달, 실시간 라이브방송 요리교실 등 호응

군산시는 코로나 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전통시장체험-온택트요리교실'을 시범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전통시장에서 판매 중인 색다른 요리를 재료별로 손질하여 바로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밀키트로 개발해 전통시장을 방문하지 않고 각 가정으로 직접 배달해, 실시간 라이브방송으로 참여가정과 요리사가 함께 진행하는 온라인 체험과정으로 진행된다. 또한 라이브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유튜브에 공유하여 홍보 효과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에서 6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범 라이브방송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 27일 2차 방송에서는 군산공설시장 청년몰에서 프랑스 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보나빠페' 대표 및 셰프 조나단(프랑스인)과 아내 이미화 씨가 같이 진행하여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 받았다.

특히 조나단의 영어식 설명과 아내의 통역 방식으로 진행되어 자연스럽게 외국어 교육도 배울 수 있어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 색다른 방송이었다는 칭찬이 이어졌다.

'온라인 전통시장 체험-온택트요리교실'은 코로나로 집에서 생활하는 시

간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가족 모두가 요리를 통하여 함께 즐기고 전통시장의 다양한 체험콘텐츠를 공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가정과 학교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르네상스사업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전통시장을 체험장으로 하여 '아이잡터'나 '시장체험', '프리마켓' 행사 등이 큰 호응을 얻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행사가 불가능하여 안타까웠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체험과정'은 중요한 사업콘텐츠로 자리 잡을 것이며, 앞으로 더욱더 다양한 형태를 개발하여 전통시장을 융복합 문화공간으로 변화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쑈, 명절 치안대책 추진

군산경찰서(총경 최홍범)는 1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대응과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설 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19관련 대응 및 관리강화, 선제적 예방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특별교통관리 대책 추진, 예방적·가시적 형사활동, 테러·안보위해 대응, 연휴중 치안 활동상 홍보 등 각 기능별로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선제적 예방활동 및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사회의 불안요인의 선제적 해결을 위해 CPO는 취약 금융기관과 귀금속점 밀집 지역 분석 및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군산시 지역안전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범죄발생 우려지역 위주의 범죄예방활동 전개에 앞장서고, 지역경찰은 코로나19에 유의하며 지역안전순찰 실시 및 범죄 취약지 위주로 자율방범대 28개 지대별 각 3~4인과 민·경 합동순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원광대병원, 프리셉터 워크숍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이 교수연구동 소강당에서 중경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프리셉터 워크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열린 워크숍은 대규모 인원이 참석했던 기존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코로나 19 감염 예방의 원활한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지난 14일, 19일, 21일, 26일, 28일까지 총 5회로 나누어 소규모 인원으로 구성된 가운데 실시했다.

프리셉터 워크숍은 신규 간호사가 병원 생활 및 간호 실무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경력 간호사가 멘토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교육이다.

원광대병원은 이 프리셉터 교육이 화합과 소통을 통한 유기적인 간호 조직 문화 정착, 긍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간호실무능력 향상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교육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본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